MZ, Hip한 불교에 끌린다

‘마음 수행’ 상징 불교 타투…현대적 감성에 ‘힙’하기까지

임은호 기자 imeunho@hyunbul.com

“2년 전 수계법회에 연비 대신 금강저 모양 타투스티커를 붙였어요. 타투스티커를 볼 때마다 초발심을 다지는 느낌이랄까? 타투로 영원히 간직하며 마음에 되새겨야 겠다 마음먹었죠.”

대학생 킹토끼(22) 씨가 손목에 새겨진 금강저 타투(Tatoo)를 보이며 웃으며 말했다. 킹토끼 씨는 “금강저 타투를 새긴 후 틈틈이 보면서 마음을 가다듬는다”며 “마음 수행과 나의 정체성을 표현하는 데 큰 역할을 한다”고 설명했다.

타투인구 300만 명, 반영구 시술을 받은 인구가 1천만 명에 달한다는 추정이 나올 정도로 타투는 대중화의 길을 걷고 있다. 한때 조폭의 상징이었던 ‘문신’은 삶의 신조부터 인생에서 찾은 진리, 종교의 의미 등 자신만의 경험과 가치관이 담겨지면서 이제 ‘타투’라는 이름으로 리브랜딩 돼 우리 사회에 녹아들었다.

최근 MZ세대 사이에서는 본래 가진 고유한 상징성에 현대적 감성이 더해지면서 불교 의미가 담긴 타투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불교 타투가 대중의 관심사로 떠오른 것은 가수 이효리 씨의 왼쪽 팔 안쪽에 새겨진 인드라망 도안 타투가 화제를 모으면서부터다. ‘생명평화무늬’로 불리는 이 타투는 특히 채식과 동물보호 등 생태계 이슈에 관심이 많은 이효리 씨의 가치관뿐 아니라 종교관이 표현됐다는 점에서 큰 관심을 끌었다.



불교가 가진 고유한 상징성이 가치관과 감성을 자극, 타투로 표현하는 데 망설여지지 않는다는 점이 불교 타투의 장점이라는 게 다수의 의견이다.

최근 딸을 얻은 윌리엄(29) 씨는 딸을 위해 자신의 팔에 연꽃 타투를 했다. 윌리엄 씨는 “연꽃이 더러운 곳에 처해 있어도 세상에 물들지 않고, 맑고 향기로운 꽃으로 피어나 세상을 정화한다는 의미를 가졌다는 것을 알고 딸이 그렇게 자라나길 바라는 마음에 연꽃을 선택했다”면서 “불자는 아니지만 불교가 가진 고유한 상징성이 감성을 자극, 타투를 하는데 큰 거리낌이 없었다”고 말했다.

가슴에 ‘옴’ 타투를 새긴 제리(28)씨는 “타투는 평생 지녀야 할 것이기에, 평소 부처님 가르침을 일상에서 많이 실천하고 잊지 않기 위해 후회하지 않을 문양을 골랐다”면서 “의도했던 것은 아니지만 개인의 이야기와 취향을 담은 고유한 각인으로 다른 친구들의 타투에 비해 ‘힙’해 보이기도 해 만족감이 크다”고 말했다.

한 불교 타투이스트는 “불교 이미지 타투를 시술하며 불교가 내 삶에 스며들었다”면서 “불교 상징 이미지 타투는 대중문화와 패션계 사람들이 불교에 대한 흥미를 가지도록 하는 데도 큰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채식하는 MZ세대…사찰음식 관심도 ‘UP’



치맥과 삼겹살 회식의 인기가 하늘을 찌르던 일상은 이제 지났다. 건강과 환경을 이유로 채식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채식’의 위상이 달라지고 있다. 특히 최근 MZ세대 사이에서 코로나19와 이상기후 등으로 윤리적 소비와 비건에 대한 관심이 부쩍 늘고 있다. 건강 문제뿐만 아니라 자신의 신념에 따른 가치 소비를 중시하게 된 것이다.

KB국민카드가 최근 3년 간 비건 음식점 매출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2022년 8월 현재 비건 음식점 수는 3년 전인 2019년 8월에 비해 391% 늘어났다. 매출액도 272% 증가했다. 이는 건강에 관심이 많고 가치소비를 중시하는 MZ세대가 비건 음식점을 자주 방문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특히 20대 여성의 소비는 무려 930% 폭증해 모든 연령대와 성별에서 가장 많이 늘었다.

MZ세대 사이에서 채식 트렌드가 이어가면서 최근에는 한국고유의 비건음식이라고 할 수 있는 사찰음식 또한 최신 유행처럼 소비되고 있다. 사찰음식점이 20·30 세대들이 붐비는 일명 ‘핫플레이스’에 속속 등장하고 있는 것만 봐도 MZ세대들에게 사찰음식의 인기를 가늠할 수 있다.

사찰음식이 문화 트렌드로 떠오르고 있지만 단순한 채식으로 여겨질 수 있다는 점에서는 우려의 목소리도 있다. 채식은 발우공양 정신을 현대에 맞게 대중화한 삶의 방식이기에 불교 그 자체이지만, 의미를 제대로 알리지 않으면 불교는 사라지고 채식만 남게 될 수 있다는 것이다.

한 사찰음식 전문가는 “사찰음식을 통해 채식의 가치뿐 아니라 본연의 의미도 접할 수 있게 된다면 불교를 좀 더 친근하게 알릴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동물윤리, 생태계보호, 윤리적 소비를 중요하게 생각하며 비건채식을 실천하는 20·30세대들이 전 세계적으로 폭발적으로 늘어날 것을 염두, 훌륭한 잠재적 불자들을 불교계가 모범을 보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MZ What do you Like?

갓생살기, ‘걷기’ ‘멍때리기’ 등 유행

MZ세대 삶의 트렌드는 변화한다. 초기에 인생은 한번 뿐이라는 ‘욜로(오늘살이)’부터 ‘소확행(소소한 행복)’, ‘플렉스(과시성 소비)’ 등은 옛말이다. 이제 MZ세대가 주목하는 라이프스타일은 ‘갓생살기’(GOD+生살기)다.

갓생살기는 하루하루 소박한 목표를 실천하면서 성실하게 살아가는 방식을 말한다. 다른 사람의 시선이나 고정관념이 개입되지 않는 순수한 자기만족의 시간이다.

MZ세대는 미디어 등에서 과소비를 하는 모습으로 그려진다. 하지만 SNS에서 보이는 일부가 아닌 대다수의 MZ세대는 ‘다른 세상 이야기’라고 입을 모은다.

최근에는 하루에 한푼도 쓰지 않는 ‘무(無)지출 챌린지’가 이른바 갓생살기의 일부로 유행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걷기’는 가장 기본적이면서 건강도 챙길수 있는 활동이다. 하루에 몇보 이상 걷겠다는 목표를 세우다 보면 자연스럽게 등산길 등 사찰 주변 둘레길을 찾게 된다.

MZ세대의 핫플레이스인 ‘한강’도 하나의 공간이다. 한강 걷기 후 흐르는 강물을 보면서 소소하게 대화를 나누거나 이른바 ‘멍’을 때리는 것도 하나의 힐링 문화로 자리잡고 있다.



가치가 있다면 다소 힘들어도 참여하는 MZ세대들이기에, 건강과 함께 지구환경을 함께 지키는 ‘플로깅(쓰레기 주우며 걷기)’도 참여율이 높다. 2016년 스웨덴에서 처음 시작돼 북유럽을 중심으로 빠르게 확산된 플로깅은 쓰레기를 줍기 위해 앉았다 일어나는 동작이 스쿼트 운동과 자세가 비슷하다는데서 운동 효과도 상당하다.

아직까지 불교계에서는 수행의 일환으로 걷기명상 등을 활용하고 있지만, 이러한 친환경과 건강에 관심이 많고, 가치소비를 하는 MZ세대에게 사회기여도 함께 할 수 있는 방안을 도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탄소발자국으로 남긴 ‘인증샷’ 보단 ‘이너피스’의 시간



“등산로와 이어진 인적 드문 산길이거나 비포장로, 오솔길을 두 발로 걸어가며 자의 반, 타의 반, 탄소 배출을 줄이는 친환경적인 여정이 이뤄지고 있다는 것을 알았어요. 거기에 명상과 휴식은 덤으로 얹어졌죠.”

최근 템플스테이를 다녀온 새내기 직장인 한수진 씨(24)가 템플스테이를 한마디로 ‘이너피스(Inner Peace)’라고 표현했다. 내면의 평화와 안정감을 주는 시간이었다는 뜻이다.

MZ세대들이 느끼는 삶의 질 저하, 스트레스 누적, 여가문화의 부재는 진정성 있는 정신문화 향유를 더욱 갈구하고 있다. 템플스테이가 MZ세대에게 독특하면서 창의적인 관광의 형태로 높은 인기를 모으고 있는 이유도 이 때문이다. 전통사찰에 체류하면서 스님의 일상생활을 직·간접적으로 체험하고 종교 및 교육, 문화적 불교 프로그램을 제공받으면서 종교적 체험도 덤으로 할 수 있다는 점에서다. 특히나 삶의 질에 민감한 MZ세대에게 템플스테이는 종교를 넘어 최대한의 휴식과 평화를 얻을 수 있는 여행으로 인식되고 있다.

인터넷 쇼핑하듯 숙소와 여행지를 고르고 먹거리를 찾아다니며 ‘인증샷’을 남기는 여행, 자동차와 비행기를 타며 엄청난 탄소 발자국을 남기는 여행을 하고 있었다는 것을 간과한 순간, 좀 더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한 여행을 떠올린 것이다.

코로나19 이후 산중은 MZ세대의 새 놀이터가 된 지 오래다. 템플스테이를 운영하는 한국불교문화사업단이 20돌을 맞아, 올해 봄부터 진행한 2002년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스무살 맞이 템플스테이’와 5060부모세대와 MZ세대인 20·30대 자녀들이 함께 템플스테이 ‘부모님과 함께 하는 라떼 템플스테이’ 등이 인기리에 마감된 것만 봐도 MZ세대들의 템플스테이에 대한 호응을 실감할 수 있다. 방탄소년단(BTS) 멤버 RM도 올 여름 김천 직지사에서 템플스테이를 하며 산내암자를 순례하고 계곡에서 한여름 망중한을 즐긴 것으로 알려졌다.

템플스테이 한 관계자는 “템플스테이는 불편함은 있지만 부끄러움은 없는 여행”이라며 “일상에서 떨어진 공간에서 건강한 식단과 자연명상을 통한 심신 수련, 최소한의 쓰레기와 탄소 발자국을 남기며 최대한의 휴식과 평화를 얻을 수 있는 여행으로 MZ세대들이 템플스테이를 꼽는 이유”라고 말했다.

현대불교신문 창간 28주년을 축하합니다
대 한 불 교 조 계 종
대광명사
대광명불교대학 · 해운대백병원 불교법당
서울분원 지금선원
YouTube 불바보TV
주 지 목 종
사부대중 일동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좌동순환로 473 (로데오아울렛 3층)
전화 051)742-7610 팩스 051)742-7606 www.daekangmung.com

개교 40주년
부산불교교육대학
신입생 모집 중
5개월 완성 기초 핵심 교리반
■ 학장 평천 범혜 스님 직강(대강백 월운 스님 전강제자)
■ 불교 전반을 쉽게 이해하고 공부할 수 있는 기초기반 확립
■ 주1회 매주 화요일 저녁7~9시
■ 접수마감 : 10월 18일(화)


대한불교조계종 삼보문화회
부산불교교육대학 학장 평천 범혜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가야대로 749-1 신동아오피스텔 5층(서면 롯데백화점 맞은편) Tel. 051-711-0700